

TU Graz 교환학생 후기

2016-10014

2019년 2학기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으니, 오스트리아로의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교환학생이 뭐지 하고 후기글을 찾아보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가 겪고 생각한 일들에 대해, 그리고 교환학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1. 교환학생 출발 전 준비

교환학생을 가려면 준비해야 할 게 매우 많습니다. 일단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부터 선택하고, 간다면 공대든 본부든 신청해서 붙어야겠지요. 교환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후 교환학생으로써 제가 겪은 일들을 보시면 되고, 일단 가고자 하는 대학에 붙었다는 전제 하에 적어보겠습니다.

1) 비자.

외국에 가려면 당연히 비자를 준비해야겠지요. 증명사진 1매 (인화지에 인화된 것. A4에 뽑아갔다가 대사관 근처에서 다시 찍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증빙서류, 비행기 티켓, 보험 서류 (전 동부 엘코코 보험을 3주 동안만 가입했습니다. 상해보험료가 3천만원인가 이상이었어야 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학생보험이 의무이기도 하고 여행자보험을 중복으로 들기엔 가격부담이 있어서 단기간만 신청했습니다.) 등등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들고 가서 비자 만들어주세요! 하면 1주~2주 뒤에 비자 발급이 됩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2) 비행기 티켓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되 돌아올 땐 여행 일정을 꼭 구체적으로 짜시기 바랍니다. 편도로 2매 구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왕복이 훨씬 쌉니다.

3) 장학금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공대에서 지원금을 받을 겁니다. 혹시 다른 지원금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두 개 지원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셈듀오: 제가 지원금을 받은 재단인데, A대학으로 교환을 간다고 하면 A대학→서울대로 오는 친구와 서울대→A대학으로 가는 당신이 서로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페어링이 안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 전 운 좋게도 딱 1명이 TU Graz에서 서울대로 와서 아셈듀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들어야 하는 수업 학점 수 (20 ECTS, 서울대 기준 약 2ECTS가 1학점)가 조금 많은 게 단점입니다.

-미래에셋: 가장 대중적인 교환학생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이 상당히 크고 뽑는 인원도 꽤 많지만, 지원 시기가 상당히 일찍이라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4) 준비물

사실 전 국외로 나가는 게 거의 처음에 가까울 정도로 인도어파여서, 뭘 들고 갈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

다. 기억하세요. 짐은 가볍게,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국제택배로. 딱 한 달 정도 필요한 옷들과 위생도구, 응급약, 한국음식들만 챙겨가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현지에서 구하고 나머지는 택배로 받으면 됩니다. 옷은 생각보다 해외에서도 싸고 좋게 구매할 수 있으니, 한국 음식들 많이 챙겨주세요. 나중에 그림...다기보단 요리하기 귀찮은데 라면이나 레토르트 식품 있으면 삶이 편해집니다. 스팸, 김, 통조림김치 가져가세요. 그리고 환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은행에서 환전해 갔지만 출국하기 전엔 다른 싸고 좋은 방법들 많으니 최대한 일찍 준비하세요. 전 1000유로 환전했고 추가로 장학금을 받아 오스트리아 현지 계좌로 옮겨서 사용했습니다.

5) 기숙사 신청

오스트리아 기숙사는 OEAD라는 국제학생 기숙사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구하지만, WIST나 아예 자취방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OEAD에서 구하는 경우 neubaugasse (노이바우가세)나 stereyergasse (슈테레아가세)를 많이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노이바우가세 추천합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방도 넓으며 시내와 가까워서 슈테레아가세 사는 친구들도 노이바우가세 신청할 걸 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OEAD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최대한 빨리 신청해주세요. 안그러면 방 차서 못 들어갑니다.

6) ESN buddy program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엔 ESN이라는 교환학생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흡사 스누버디) 이 단체에 가입해서 멘토를 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형식상의 멘토고 도움을 별로 안 주지만, Annalena라는 버디와 Lina라는 버디는 신청한 친구들이 교환학생 끝날 때까지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메일로 자세한 사항이 올 테니 확인해보시고, ESN 홈페이지에서 픽업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든, 다른 숙소에서 기숙사까지 픽업해주고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전 공항 근처 게스트 하우스에서 이를 있다가 3시간 거리 기숙사로 들어갔어야 해서 신청했습니다. 상당히 꿀입니다.

2. 교환학생 가서는?

이제 준비 끝내고 출국했으니, 가서 어떤 수업을 듣고, 기숙사는 어땠고, 사람들은 어땠고,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다.

1) 기숙사

픽업 서비스로 짐 들고 가서 기숙사 들어갔었는데 (노이바우가세)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여담이지만 6인 5실로 2인 1실 1개에 1인 1실 4개였는데, 전 1인 1실이었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상당히 친해져서 이번 여름에 아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지...)

2) 수업

전 재료공학부여서 German Intensive course (학기 시작 1개월 전부터 듣는 독일어 프로그램.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어 수업 하나, 재료공학부 석사 수업 4개, 실험 수업 1개 들었습니다. 장학금 조건 때문에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듣고 싶어서 수강한 과목들일 겁니다. 수업 분위기는 한국이랑 상당히 다른 게, 질문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책상 푹푹 두드리고 Professor 하면서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걸 원래 좋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 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과 크게 차이 없는데, 독강으로 수강하다 보니 조금 힘든 감이 있지만 시험들이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암기과목이야 어느 나라에서든 힘들게 나오니까...) Studo라는 어플을 설치해서 SNUTT처럼 쓰는데, 광고 없는 프리미엄

버전을 ESN을 신청하면 현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어 코스의 경우 선택으로 들을 수 있는데, 들어 두면 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두세달 지나니까 케밥집에서 케밥에 토마토 빼고 테이크아웃까지 독일어로 가능했습니다. 20 ECTS라 많아 보이지만 서울대 기준 10학점이고, 체감상은 15학점 정도로 수업 로드 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실험 수업도 원래 하던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적성에 맞아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왔지만 뭐... 실험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3) 대외활동 및 여행

대외활동은 크게 ESN에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외국인 친구들과의 파티, 개인 여행 이렇게 3개 했습니다. ESN에선 스키 프로그램, 와인 로드 등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는데, 시간 될 때마다 갔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서 여기가 해외구나 하고 느낀 게 외국인 친구들과의 생활이었는데, 그 친구들도 사람이라 저희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밥 언제먹지 수업 언제 끝나지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매일 매일 밤마다 파티합니다. 기숙사 지하에 파티룸이 있는데, 가보면 항상 음악과 춤이 술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사실 많이 안 다녔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렇게 3군데 갔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많이 아실 것이니 여기선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 생활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건 자전거. 자전거 있으면 최소한 오스트리아에선 생활이 편해집니다. 저도 자전거를 오스트리아 가서 배웠는데, 도로가 워낙 자전거를 많이 배려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 터라 지난 교환학생에게서 사던, 현지 중고장터 (Graz Marketplace, 페이스북 그룹)에서 사던 꼭 하나 장만하세요. 참고로 노이바우가세에선 근처에 Rebikel이라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필요한 용품이나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은 기본적으로 장을 봐서 요리해 먹었는데, Spar, Hofer, Billa 등 마트가 워낙 많아서 돌아다녀 보시고 싼 곳에서 장 봐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외식이 비싼 나라라 요리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Spar는 무난하고, Hofer는 싸고, Billa는 고기가 좋습니다. Billa에서 한국식 삼겹살을 파니까, 밥하고 같이 해서 드세요. 매일매일이 삼겹살 파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가 Hauptplatz (중앙 광장)과 Jakominiplatz (교통의 중심)일 겁니다. 쇼핑이나 간단한 외식을 할 수 있고, 케밥집도 많습니다. 그리고 트램을 타시게 되면 꼭 기억하세요. Hauptplatz와 Jakominiplatz가 한 정거장 차이로 이어져 있는데, 모든 노선에서 두 정거장의 +-1 정거장까진 트램이 무료입니다. 즉 A-B-Hauptplatz-Jakominiplatz-C-D로 되어 있으면 B~C 구간은 무료이고, 그 외의 구간은 트램 내에서 일일 트램권을 사거나 6개월 트램권 이렇게 사야 합니다. 제 경우엔 버스는 거의 타지 않고 트램 무료구간을 많이 이용했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일권을 샀습니다. 버스는 Tabak이라는 담배가게에서 티켓 한 장 달라고 하면 2.5유로에 팝니다.

보험의 경우 학생들이라면 GKK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옛날엔 가입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필수 가입이므로, 돈 많이 들어도 일단 가입해두세요. GKK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병원비가 무료로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병원의 경우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종류별로 나와 있으며, 한 번 간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야 GKK 카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병원에 갈 경우 이전에 진료받았던 병원의 이름과 의사의 이름을 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최대한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LKH와 UKH가 있는데, 링거와 같이 간단한 치료는 LKH로 가고, 교통사고나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UKH로 가세요. 근육이 아파서 UKH로 갔다가 5시간 기다리고 밥도 못먹고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적을 게 산더미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줄이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교환학생을 간 이유는, 대학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조금 쉬어 보잔 의미도 있고, 유럽여행의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해외는 교육이 대체 어떻길래 선진국 선진국 하는지 궁금해서 간 이유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환학생 가서 좋은 일만 있진 않았습시다. 지금 와서야 다 추억이고 술안주로 얘기할 만한 이야기들이지만, 현지에선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겐 교환을 전 강력히 추천합니다. 힘든 일이 많다는 건, 재밌는 일들은 훨씬 많았지만 힘든 일이 더 기억에 남아서이고, 아직도 연락하는 외국 친구들, 조금 늘어난 영어 실력, 이제는 다시 못할 6개월 간의 자유로운 유럽생활을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학생으로 갈 수 있는 최대의 수혜가 교환학생입니다. 막상 가면 향수병이 올 순 있지만, 지내다 보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여행,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세요. 후회하기 전에.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내 준 서울대 공과대학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